

2019년 서울시 7급 한국사 (2019년 10월 12일 시행)

에듀윌 한국사 대표강사 신형철

1. 같은 왕대에 발생한 일이 아닌 것은?

- ① 왕의 장인인 김흠돌이 반란을 일으켜 그 일당을 처벌 하였다.
- ② 유교 경전에 대한 이해 수준에 따라 세 등급으로 나누어 관리를 채용하였다.
- ③ 유학 교육을 위하여 국학을 설립하였다.
- ④ 지방제도를 개편하여 전국을 9개의 주(州)로 나누고 5개의 소경(小京)을 두는 체제로 정비하였다.

정답: ②

해설: ① - 김흠돌의 난, ③ - 국학의 설립, ④ - 9주 5소경 체제 정비는 모두 <u>신문왕 시기의</u> <u>사실</u>이다.

오답확인

② <u>독서삼품과</u>(유교 경전에 대한 이해 수준에 따라 세 등급으로 나누어 관리를 채용)는 <u>원성</u> <u>왕 때 설치</u>되었다.(원성왕 4, 788)

2. 삼국시대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광개토대왕릉비를 통해 고구려의 독자적인 천하관을 알 수 있다.
- ② 단양 신라 적성비에서 신라의 중앙 집권 체제를 이해할 수 있다.
- ③ 사택지적비에서 백제의 한문학 수준을 이해할 수 있다.
- ④ 호우총의 청동 그릇을 통해 고구려가 신라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④

해설: 오답확인 ④ - 호우총의 청동 그릇(호우명 그릇)은 <u>신라가 고구려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u>음을 알 수 있는 유물이다.

3. <보기>의 밑줄 친 인물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무예가 대장 장문휴를 파견하여 해적을 거느리고 등주를 치니, 당 현종은 급히 문예를 파견하여 유주의 군사를 동원시켜 이를 공격하는 한편, 태복경 김사란을 사신으로 신라에 보내어 군사를 독촉하여 발해의 남부를 치게 하였다. 마침 날씨가 매우 추운 데다 눈이 한길이나 쌓여서 군사 들이 태반이나 얼어 죽으니, 공을 거두지 못하고 돌아 왔다.

- ① 당이 발해왕을 발해국왕으로 승격하여 책봉했다.
- ② 발해가 일본에 사신을 파견하여 국교를 맺었다.
- ③ 전류성왕을 자처하고 황상, 황후 등의 용어를 사용 하였다.



④ 동경에서 상경으로 천도하고 중흥(中興)이라는 연호를 채택하였다.

정답: ②

해설: 제시된 자료 중 '무예', '장문휴의 등주 공격'을 통해 밑줄 친 인물은 <u>무왕(대무예)</u>임을 알 수 있다. ② - 발해는 무왕 때 **일본과 국교를 체결**하였다.

오답확인

- ①, ③ 발해국왕으로 승격, 전륜성왕의 자처, 황상, 황후 등의 용어를 사용한 것은 문왕(대 흠무) 때 사실이다.
- ④ 성왕(대화여, 5대 왕, 재위 기간: 793 ~ 794)은 동경에서 상경으로 천도하고 중흥(中興)이라는 연호를 채택하였다.

4. <보기>의 밑줄 친 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영동대장군 백제 <u>사마왕</u>은 나이가 62세 되는 계묘년 5월 임진일인 7일에 돌아가셨다. 을 사년 8월 갑신일인 12일에 안장하여 대묘에 올려 뫼시며 기록하기를 이와 같이 한다.

- ① 북위에 사신을 보내 고구려를 공격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② 신라와 결혼 동맹을 맺어 이벌찬 비지의 딸을 왕비로 맞이하였다.
- ③ 22부의 중앙 관청을 두고 수도와 지방을 5부와 5방으로 정비하였다.
- ④ 양나라에 사신을 보내 여러 차례 고구려를 격파했다는 서신을 전했다.

정답: ④

해설: 밑줄 친 '사마왕'은 백제의 무령왕이다. ④ 양나라에 사신을 보내 여러 차례 고구려를 격파했다는 서신을 전했다.

오답확인

① 개로왕, ② 동성왕 - 신라와의 혼인동맹(493) ③ 성왕에 대한 설명이다.

참고 - 무령왕과 양(梁)과의 관계

[무령왕] 21년(521) 겨울 11월, 사신을 양(梁)나라에 보내 조공하였다. 이보다 앞서 고구려에게 격파당하여 쇠약해진 지가 여러 해였다. 이때 이르러 표를 올려, "여러 차례 고구려를 깨뜨려 비로소 우호를 통하였으며 다시 강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일컬었다. 12월에 양나라 고조(高祖)가 조서(詔書)를 보내 왕을 책봉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행(行) 도독(都督) 백제제군사(百濟諸軍事) 진동대장군(鎭東大將軍) 백제 왕 여융(餘隆)은 해외에서 번병(藩屛)을 지키며 멀리 와서 조공을 바치니 그의 정성이 지극하여 짐은 이를 가상히 여긴다. 마땅히 옛 법에 따라 이 영광스러운 책명을 보내는 바, 사지절(使持節) 도독(都督) 백제제군사(百濟諸軍事) 영동대장군(寧東大將軍)으로 봉함이 가하다."

『삼국사기』권26,「백제본기」4, 무령왕 21년



5. <보기>의 ①에 들어갈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이때 ① 이(가) 군사를 출동시켜 사면에서 들이치니 수 병사들은 살수를 건너지도 못하고 허물어졌다. 처음 수의 군대가 쳐들어올 때는 무릇 30만 5천명이었는데, 요동성으로 돌아갈 때는 겨우 2천 7백 명뿐이었다.

- ① 그는 스스로 최고 관직인 대막리지에 올라 권력을 장악하였다.
- ② 그는 요하 하류에 있는 안시성에서 공방전 끝에 승리 하였다.
- ③ 그가 적장 우중문에게 보낸 5언 시가 전해진다.
- ④ 그는 5천의 결사대를 조직해 황산벌에서 싸웠으나 패하였다.

정답: ③

해설: 제시된 자료 중 '수의 병사', '살수' 등을 통해 살수대첩과 관련된 사료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① - 을지문덕이다. ③ 을지문덕이 적장(수의 장군) 우중문에게 보낸 5언 시가 현재 전해진다.

오답확인

- ① 연개소문, ② 양만춘, ④ 백제의 계백에 대한 설명이다.
- 6. <보기>에 해당하는 국가의 정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임금은 스스로 황상을 표방하고 독자적인 연호를 가지고 있었으며 5경 15부 62주의 행정체제를 갖추고 있었고 율령에 해당하는 정령에 따라 정치를 운영하였다.

- ① 감찰기관으로는 중정대, 재정기관으로는 사장시가 있었다.
- ② 6부의 이름은 충.인.의.예.지.신 등 유교의 덕목을 따서 만들었다.
- ③ 부에는 도독, 주에는 자사, 현에는 현승을 두었다.
- ④ 정령을 제정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을 중대성이라 불렀다.

정답: ④

해설: 오답확인 - ④ <u>정령을 제정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은 정당성</u>이며, 중대성은 국왕의 명령을 하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참고로 ① - 사장시(司藏寺)는 발해 7시 중 하나로, 재화(財貨)의 보관 및 무역활동을 담당하는 재정 기관이었다.

7. <보기>의 밑줄 친 '내'가 시행한 정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지난날 신라의 정치가 쇠하여 도적들이 다투어 일어나고 백성들은 난리 통에 그들의 폭골 (曝骨)이 들판에 널렸다. 전 임금이 온갖 혼란을 평정하고 국가 기초를 닦았으나 말년에 와서는 무고한 백성들에게 피해를 끼쳤고 국가가 멸망하였다. **내**가 그 위기를 이어 새 나라를 창건 하였는데 백성들에게 고된 노동을 시켜 힘들게 하는 것이 어찌 원하던 일이겠는가? 다만 모든 일을 시작하는 때라 일이 부득이하여 그런 것이다. …… 관리로서 나라의 녹봉을 먹는 너희들은 마땅히 백성들을 자식과 같이 사랑 하는 나의 뜻을 충분히 헤아려자기의 녹읍(祿邑) 백성들을 사랑해야 할 것이다.

- ① 대외적으로 남중국의 오월, 일본 등과 활발히 교류하며 국교를 맺었다.
- ② 발해 왕자 대광현이 망명하자 왕계라는 이름을 내려 주었다.
- ③ 『정계』, 『계백료서』 등을 통해 관리가 지켜야 할 규범을 제시하였다.
- ④ 평양을 서경으로 승격시키고 중시하였다.

정답: ①

해설: 제시된 사료는 고려 태조가 예산진에서 내린 조서 중 일부이다.

오답확인 ① - 후백제의 견훤은 남중국의 오월, 일본 등과 국교를 맺고 활발히 교류하였다.

참고 - 고려 태조가 예산진에서 내린 조서

지난날 <u>신라의 정치가 쇠하여</u> 도적들이 다투어 일어나고 백성들은 난리 통에 그들의 폭골(曝骨)이 들판에 널렸다. 전 임금이 온갖 혼란을 평정하고 국가 기초를 닦았으나 말년에 와서는 무고한 백성들에게 피해를 끼쳤고 <u>국가가 멸망하였다.</u> <u>내가 그 위기를 이어 새 나라를 창건</u>하였는데 백성들에게 고된 노동을 시켜 힘들게 하는 것이 어찌 내가 원하던 일이겠는가? 다만 모든 일을 시작하는 때라 일이 부득이 하여 그런 것이다.(중략)

관리로서 나라의 녹봉을 먹는 너희들은 마땅히 백성들을 자식과 같이 사랑하는 나의 뜻을 충분히 헤아려 자기의 녹읍(禄邑) 백성들을 사랑해야 할 것이다. 만일 무지한 부하들을 녹읍에 파견한다면 오직 수탈만 일삼아 착취를 함부로 할 것이니 너희들이 어찌 다 알겠는가. 또 혹시나 하더라도 역시 막지 못할 것이다. 지금 백성들이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는 자가 있어도 관리들이 개인적인 친분에 끌려 이들의 잘못을 숨기고 있으니 백성들의 원망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이 까닭이다.

『고려사』권2,「세가」2 태조 17년 5월 을사

8. 조선시대의 과거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문과는 정규 시험인 식년시와 특별 시험인 각종 별시로 구분되어 있었다.
- ② 무과의 경우 조선후기에 이르러서는 재정상의 이유 등으로 합격자가 양산되어 '만과(萬科)'
- 로 지칭되기도 하였다.
- ③ 잡과는 기술관을 뽑는 시험으로, 문.무과와 마찬가지로 초시.복시.전시로 구성되어 있었다.
- ④ 1894년 갑오개혁 때 폐지되었다.

፠에듀윌

정답: ③

해설: ③ - 잡과는 기술관 선발 시험으로 역과, 율과, 의과, 음양과의 4 종목이 있었다. 잡과는 3년마다 치러졌으며, <u>초시와 복시만</u> 행해졌다. 또한 분야별로 정원이 있었고, 기술학 교육은 해당 관청에서 맡고 있었다.

9. <보기>의 사건이 일어난 시간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기>

- ㄱ. 박서의 지휘 아래 귀주에서 완강히 저항했다.
- ㄴ. 배중손이 왕족 승화후 온을 왕으로 추대했다.
- 다. 기병부대인 신기군, 보병부대인 신보군이 조직되었다.
- 리. 서북면도순검사 강조가 통주에서 패하여 포로가 되었다.
- ① 7 L 2 C
- ② L = ¬ ⊏
- ③ []]]
- ④ = □ □ L

정답: ④

해설: 제시된 사건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르**: 거란의 2차 침략(현종, 1010) - **드**: 별무반의 조직(숙종, 1104) - **그**: 몽골의 1차 침입(박서, 고종, 1231) - **느**: 삼별초 항쟁의 시작(원종, 1270)

10. <보기>의 ⊙에 해당하는 것은?

<보기>

왕께서 집현전 부제학 신(臣) 설순에게 명하여 편찬 하는 일을 맡게 하였습니다. 이에 동방 고금의 서적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모두 열람하여 효자.충신.열녀로서 우뚝이 높아서 기술할 만 한 자를 각각 1백 인을 찾아내었습니다. 그리하여 앞에는 형용을 그림으로 그리고, 뒤에는 사실을 기록하였으며, 모두 시를 붙였습니다. …… 편찬을 마치니, ① (이)라고 이름을 하사하시고, 주자소로 하여금 인쇄하여 길이 전하게 하였습니다.

- ① 『입학도설』
- ②『국조오례의』
- ③ 『소학』
- ④ 『삼강행실도』

정답: ④

해설: ④ <u>『삼강행실도』</u>(세종 16, 1434) 는 <u>설순</u>이 모범이 될 만한 충신, 효자, 열녀를 골라 그 행적을 <u>그림으로 그리고</u> 설명을 덧붙였다. 이후 한글로도 번역되었다.



11. 고려시대의 경제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개경의 우창(右倉) 곡식은 관리의 녹봉으로 지출 되었다.
- ② 양안과 호적 작성은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시행되었다.
- ③ 상업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철전, 은병 등이 주조되었다.
- ④ 고려 말에는 남부 일부 지방에 모내기법이 보급되었다.

정답: ①

해설: 오답확인 ① - 개경의 좌창의 곡식은 관리의 녹봉으로 지출되었고, <u>우창의 곡식은 국용</u> (國用 - 공공재정, 국가재정)으로 사용되었다.

12. <보기>의 ⊙에 들어갈 인물과 관련된 서술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반정에 의해 왕위에 오른 중종은 한동안 공신들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중종은 재위 8년 무렵 반정 3인방이 모두 사망하면서, 기존의 훈구 세력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 파트너를 구했다. 그때 중종의 눈에 들어온 ① 은(는) 사림파의 선두 주자였다. 그는 1510년 과거에 장원으로 합격하고, 1515년 별시에 급제하여 국왕인 중종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후 왕을 측근에서 보필하는 핵심 요직을 두루 거쳤고, 1518년 대사헌에 오르는 파격적인 승진을 거듭하였다.

- ① 鈴학마 향약(鄕約)의 보급을 위해 노력하였다.
- ② 사초 문제가 발단이 된 무오사화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
- ③ 방납의 폐단을 시정할 것을 주장하였다.
- ④ 위훈삭제로 구세력을 제거하고 신진세력 중심으로 정치판을 재편하려 하였다.

정답: ②

해설: 중종 때 중용된 대표적 사림은 ① - '조광조'이다. 조광조는 음소학명과 향약(鄕約)의 보급을 위해 노력하였고, 방납의 폐단을 시정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위훈삭제(삭훈)를 통해훈구세력을 제거하여 사림 중심의 정치를 시도하였다.

오답확인

- ② 무오사화로 인해 <u>김일손</u> 등의 사림이 목숨을 잃었다. 한편 이미 사망한 김종직은 부관참시 (剖棺斬屍)되었다.
- 13. 조선 후기에 <보기>의 주장을 펼친 인물의 저술로 옳은 것은?

<보기>



재물은 비유하자면 샘과 같은 것이다. 우물물은 파내면 차고, 버려두면 말라 버린다. 그러므로 비단옷을 입지 않아서 나라에 비단 짜는 사람이 없게 되면 여공이 쇠퇴 하며, 찌그러진 그릇을 싫어하지 않고 기교를 숭상하지 않아서 공장(수공업자)이 기술을 익히지 않게되면 기예가 사라지게 된다. 심지어 농사가 황폐해져서 농사 짓는 법을 잊고, 상업은 이익이 적어서 생업을 잃게 된다. 그리하여 사.농.공.상 사민(四民)이 모두 곤궁해져서 도울 수없게 된다.

- ① 왐계수록명
- ② 묶학의명
- ③ 왉우록명
- ④ 유흥신서명

정답: ②

해설: ② - 제시된 사료는 <u>박제가</u>의 <u>『북학의</u>』중 일부이다. 박제가는 움학의 중 에서 소비와 생산의 관계를 우물물에 비유하며, 소비를 강조하였다.

14. <보기>와 같은 역할을 담당한 조선시대 정치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 궁중의 서적과 문서를 관리하고, 국왕의 자문에 응하며, 경연(經筵)을 주관하였다.
- 매일 아침 신하들이 임금에게 정사를 보고하던 상참 (常鏊) 등에 참여하여 국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다.
- ① 옥당이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 ② 사간원. 사헌부와 함께 삼사를 구성하였다.
- ③ 외교 문서와 사초를 작성하였다.
- ④ 소속 관원은 청요직이라 하여 선망의 대상이었다.

정답: ③

해설: 오답확인 ③ - 외교문서를 담당하던 관청은 승문원이며, 사초는 예문관 사관(한림)이 작성하였다.

15. <보기>의 독립운동이 전개되었던 지역은?

<보기>

- 이상설 등이 권업회를 조직하여 민족의식을 고취했다.
- 이상설과 이동휘를 정.부통령으로 하는 대한 광복군 정부가 조직되었다.

፠에듀윌

- ① 서간도
- ② 북간도
- ③ 연해주
- ④ 미주지역

정답: ③

해설: ③ - 권업회(1911)와 대한 광복군 정부(1914)는 모두 연해주에서 조직된 단체이다.

16. <보기>의 비석을 세우게 된 직접적인 사건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서양 오랑캐가 침범하였을 때 싸우지 않는 것은 화친하는 것이요, 화친을 주장하는 것은 나라를 파는 것이다.

- ① 운요호가 강화도 초지진을 공격하였다.
- ② 미국이 초지진과 덕진진을 점령하였다.
- ③ 부산, 인천, 원산 항구를 개항하였다.
- ④ 구식 군인들이 반외세 운동을 일으켰다.

정답: ②

해설: 제시된 자료는 <u>1871년 신미양요 직후</u> 전국 각 지역에 세워진 <u>척화비</u>의 내용이다. ② 신미양요 당시 미국은 초지진, 덕진진을 점령하고, 광성보를 공격하였다. 광성보 전투 당시, 어재연 등 조선 병사들은 대부분 순국하였다.

17. <보기>의 지리서를 편찬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기>

- ㄱ. 왐아방강역고명
- L. 똥국여지승람명
- 다. 읢찬팔도지리지명
- 리. 음국지리지명
- ① 7 2 L □
- ② L C 2 7
- ③ [-]]]
- 4 2 L ㄱ ㄷ

정답: ③

해설: 보기의 지리서 편찬 순서는 다음과 같다. 📭: (옮)찬팔도지리지명세종, 1432) - 🖵: 🥵



국여지승람명성종, 1481) - <u>리</u>: 한백겸, 음국지리지명광해군, 1615) - <u>기</u>: 정약용, **음**)방강역 고명순조, 1811)

18. <보기>에 제시된 두 정책의 공통점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 만동묘를 철폐하고 폐단이 큰 서원을 각 도에 명하여 철폐하도록 하였다. 선비들 수만 명이 대궐 앞에 모여 다시 설립할 것을 청하니, 대원군이 크게 노하여 한강 밖으로 몰아냈다.
- 갑자년(1864) 초에 대원군이 강력히 중원(衆怨)을 책임지고, 귀천이 동일하게 장정 한 사람마다 세납전 2꾸러미를 바치게 하여, 이를 동포전이라고 칭하였다.
- ① 농민들의 봉기를 초래하였다.
- ② 유생들의 지지를 받으며 추진되었다.
- ③ 신분제도가 폐지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 ④ 정부의 재정 수입 증가에 기여하였다.

정답: ④

해설: 만동묘 철폐와 서원 정리는 왕권 강화의 측면과 함께, 서원전의 몰수 등을 통한 국가 재정 확보의 목적도 있었다. 한편 동포법(이후 호포법)은 양반에게도 군포를 부과하여 평민의 군포 부담을 줄이고, 국가 재정을 확충하려는 의도로 시행되었다. 따라서 두 정책의 공통점은 ④ - 정부의 재정 수입 증가에 기여하였다.

19. <보기>의 ㈜와 ㈜ 조약 체결 사이에 일어난 사건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 (카) 한국 정부는 시정 개선에 관하여 통감의 지도를 받을 것.
- (+) 한국 황제 폐하는 한국 전부에 관한 모든 통치권을 완전 또는 영구히 일본 황제에게 양여한다.
- ① 「사립학교령」이 공포되었다.
- ②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다.
- ③ 재정고문 메가타가 화폐정리에 나섰다.
- ④ 한국 군대를 해산하는 조칙이 발표되었다.

정답: ③

해설: (가) - 한일신협약(정미 7조약, 1907. 7), (나) - 한일병합조약(1910)이다. 따라서 1907년 ~ 1910년 사이의 역사적 사실이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이다. 따라서 ③ - 1905년 시작된 화폐정리사업을 정답으로 고르면 된다.



지문확인

- ① 1908년 「사립학교령」이 공포되었다.
- ② 1909년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다.
- ③ 1905년 재정고문 메가타가 화폐정리에 나섰다.
- ④ 1907년 8월 한국 군대를 해산하는 조칙이 발표되었다.

20. <보기>의 ⊙과 ⓒ에 들어갈 인물들의 이름을 옳게 짝지은 것은?

<보기>

1956년의 제3대 정.부통령 선거에서는 평화 통일과 혁신 노선을 내세운 <u>①</u>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 하여 전체 유효표의 30%를 차지하였고, 부통령 선거에서는 민주당의 <u>○</u> 후보 가 자유당의 이기붕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었다.

① **(**)

- ① 조봉암 장면
- ② 신익희 장면
- ③ 조봉암 김성수
- ④ 신익희 김성수

정답: ①

해설: 1956년 제 3대 정. 부통령 선거에서는 평화통일과 혁신 노선을 내세운 <u>〇 - 조봉암</u>이 유효표의 30%를 획득하였다.(참고 - 1위: 이승만 - 70% 획득) 한편 민주당의 부통령 후보였던 <u>〇 - 장면</u>은 46. 4%의 득표율로 자유당의 이기붕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었다.